

<2013년 6월 5일 수요일말씀>

## 진짜와 가짜

본 문 요한복음 3장 21절, 8장 43-47절  
로마서 2장 6-8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으로 하나씩 깨우쳐 주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행하여 진짜 인생, 진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성자가 떠났다.’라는 말을 잘 인식하여라. 사람들은 예수를 성자로 인식해 왔다. 이는 신약역사 때까지는 그러했다. 신약이 지나고 성약이 왔다. 성자가 예수를 쓰고 나타나는 때는 떠났다. 이제 성약역사이니, 성자는 성약의 사명자를 쓰고 나타나야 된다.
2.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성자가 보내어 그 육으로 쓰는 자를 맞은 자는 하나님과 성자를 맞은 것이다. 모세 때는 모세, 예수 때는 예수, 이 시대는 이 시대 성자 분체다.
3. 사람이 소망을 두고 일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4. 소망과 희망은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무한한 능력자다.

5. 신부라면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

6. 역사는 동시성이다. 옛 역사가 새 역사로 전환되면서 동시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선악 간에 동시성으로 행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음 잠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7. 예수님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었다. 성자가 강림하셨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존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들은 가짜만 알아서 진짜를 몰랐다. 가짜 종들을 쓰면서 진짜를 기다렸다.

8. 예수님 때, 하나님과 성자가 오셨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과 성자를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 예수  
수를 맞은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과 성자를 맞은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9. 재림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오셨다. 그런데 무엇으로 안 보이는 성삼위를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내어 그 육으로 쓰는 시대 사명자를 맞은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구원의 핵심 존재자이신 재림주 성자를 맞은 자가 된다.

10. 이 시대도 기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던 기성인들은 예수님만 믿고 사는 순진한 자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꺾고 또 꺾는다. 가짜에 너무 속고 속아서 진짜가 와도 가짜라고 하며 외면하는 것이다. 가짜로 살던 자들은 진짜를 봐도 가짜로 본다. 그릇된 인식과 사고와 버릇과 습관 때문이다.

11.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짜는 소리를 들어 보면 안다.

가짜 메시아와 가짜 재림주들은 ‘성자와 분체’를 모른다. ‘성자의 재림’도 모른다. ‘영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도 모른다.

가짜는 사람의 육이 하늘로 휴거되는 줄 알고,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오는 줄 알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줄 안다.

가짜 재림주들은 예수가 실패했기에 자기가 재림주로 왔다고 한다.

재림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 재림은 성자가 하신다. 예수님은 초림 때 성자가 그의 육으로, 그의 분체로 썼던 초림 메시아이며, 초림의 왕 중의 왕이다. 가짜들은 이것을 모른다.

진짜만 이것을 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밝히지 않고, 역사가 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밝히며 말한다.

가짜들은 한 번에 말한다. 그러니 가짜다. 진짜는 역사가 가면서 조금씩 밝히면서 나중에 한 번에 말하는 것이다. 가짜는 과정이 없다. 근본이 없다.

하나님도 성자도 역사를 펴 가면서 때를 따라 밝히신다.

그동안 한국에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했던 30여 명의 가짜들이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이 들통 나고 말았다.

가짜와 진짜는 결국 다 드러난다.

12.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때는 먼저 금을 도가니에 넣어서 녹여 본다. 또 색깔을 보고, 점같이 눌러 보고, 수십 가지 테스트를 한다. 가짜 금은 싸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며 가짜를 진짜로 속여서 판다. 가짜는 자기가 가짜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양심은 안다. 가짜는 가짜 냄새가 많이 난다.

13.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100% 가짜라고 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진짜라고 증거했다.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한 자들 자체가 가짜가 되었다.
14. 가짜 남자는 앉아서 오줌을 싸고, 가짜 여자는 서서 오줌을 싣다. 그래서 바로 안다. 가짜 구원자도 그런 식으로 안다.
15. 가짜 구원자를 두고, 하나님과 성자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꼴을 못 보고 가짜를 심판하는 오물장에 넣고 불사르신다.
16. 세상에서 가짜인지 모르면, 지옥에 가서 보면 안다. 가짜의 영들은 결국 지옥에 간다. 고로 지옥에 가서 찾으면 그 영들이 가짜들이 거하는 장소에 가 있다.
17. 세상에서 진짜인지 모르면, 천국에 가서 보면 안다. 진짜의 영은 결국 천국에 간다. 고로 천국에 가서 찾으면 그 영이 천국에 가 있다.
18. 세상에서 메시아라고 하던 자의 영을 천국에서 찾아도 없으면, 모두 지옥의 가짜들이 거하는 옥에 가 있다.
19. 끝까지 가 봐라. 가짜와 진짜는 드러난다. 속일 수 없다.
20. 가짜는 마치 구정물 통에 담가 놓은 동태의 눈 같아서 영계를 못 본다.
21. 무지한 자들은 가짜를 따르고 가짜 인생을 살면서 품을 재고 멋을 낸다.

22. 의의 돈이 없는 자들은 ‘가짜 시대 진리’를 사고, ‘가짜 진리 주인’을 취해 살면서 가짜끼리 품을 재고 멋을 부리며 산다.
23. 종교를 갖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은 후에 남편이 가짜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는 남편이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자식 때문에 어찌냐? 나이 들었는데 이제 어찌냐?” 한다. 이 시대 가짜 종교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가짜를 보면 질색하시고, 가짜를 보면 금방 분노의 눈으로 변하시어 “이 가짜들아! 나 여호와와 성령과 성자를 망령되이 가짜로 섬기고 믿고 사랑하며 사느냐?” 하며 천둥번개 치듯 말씀하신다.
25. 가짜끼리 서로 진짜라고 하며 혀가 닳도록 이야기하다가 죽었다.
26. 진짜가 가짜를 감정해 보고 가짜라고 하니 충격 받고 심장마비가 나서 죽는다. 그러나 가짜는 어차피 사망권으로 가서 죽는다.
27. 가짜들이 진짜를 보고 시기 질투하고 악평한다.
28. 가짜 신부들은 썩은 것을 피워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썩은 물을 먹으니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풀풀 난다.
29. 가짜 신부는 입에서 삭막한 말과 험한 말이 나오고, 가인 성격이 폭탄처럼 폭발되고, 혈기와 분노와 욕이 탄도미사일처럼 발사된다. 이에 모두 놀라 가슴 뛰게 한다.

30. 가짜 시장에 불이 나면 다 타 버리고, 진짜 시장은 불이 나도 금빛이 난다.
31. 100%가 아닌 것은 가짜다. 섭리사에 가짜 신부들이 많다.
32. 성자를 80%, 90% 사랑하는 자는 가짜 금반지와 금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자와 같다. 의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섭리사에 아직도 이런 가짜 신부들이 많다.
33. 섭섭함과 서운함을 타고, 시기 질투하고, 불만불평 하는 자들이 가짜 신부들이다.
34. 시기 질투하는 신부들을 보고 사탄이 와서 “내 것이다.” 하며 따진다.
35. 이성애 빠져 사는 가짜 신부는 쳐다보면 표가 난다.
36. 월명동에 가짜 돌은 모두 깨졌다. 고로 진짜로 바꿨다.
37. 가짜와 진짜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서 표가 안 난다. 점점 가면서 색이 변하고, 금이 가고, 곁이 벗겨지고, 고장이 나니 결국 본색이 드러나 엉망진창이 된다. 가짜 인생도 그러하다.
38. 가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시간이 지나니 점점 색이 바래고, 변질되고, 그림이 사라졌다. 사람도, 하늘 신부도 가짜는 이같이 된다.
39. 섭리사에서 진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진짜가 되어 진짜 성자 사

량으로 성장하여 진짜 하늘 신부가 된다.

40. 온전치 못한 허황된 비진리를 믿고 살다가 그 영이 가짜 영계로 간다.
41. ‘메시아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온다. 육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휴거된다.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은 모두 가짜이고, 그 말을 하는 자들도 가짜다. 하나님의 구원역사 이후 육이 하늘로 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두 가짜의 말이었고, 환각적이고 허황된 자들의 말이다. 육이 성자와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메시아를 알고 자기 죄를 깨끗이 사함 받아 그 공력으로 영이 변화되고 부활되어 ‘영’ 이 천국으로 휴거된다.
42. 무지한 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짜를 산다. 이와 같이 무지한 자들은 가짜 진리에 속아서 자기 마음과 인생을 다해 가짜를 사서 기뻐하며 산다. 그러다가 초가집 무너지듯 무너져 거기에 깔려서 창피당하고, 중상을 입고, 갖은 고통을 겪고, 죽기까지 한다.
43. 진짜를 불신하고 악평하고 외면하고 산 자들은 모두 가짜에 속해 산다.
44. 진짜 황금 덩이는 세월이 갈수록 드러나 더 빛이 난다.
45. 가짜 메시아, 가짜 재림주는 세월이 가니 모두 들통 났다. 그리고 죽었다. 가짜 메시아와 재림주를 따르던 자들은 “세상에는 진짜가 없구나.” 한다. 진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뿐이다. 전능하신 성자가 오셔서 세상에서 택한 자를 그 육으로 써야 ‘그 사명자가 성자와 일체 된 상태에서’ 진짜가 되고 가짜를 면한다.

인간은 누구나 가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된 자가 진짜 구원자가 된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삼위와 일체 되는 자가 변화되어 가짜에서 진짜로 부활된다. 돌포도나무는 가짜다. 참포도나무는 진짜다. 고로 참포도나무를 돌포도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46. 시장에 가면, 가짜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모두 흥분되어 적은 돈을 가지고 가짜를 산다. 어떤 사람은 진짜만큼의 가격을 주고 가짜를 산다. 모르면 불쌍하고, 모르면 고생한다. 가짜로 인해서 뼈저리게 고통을 겪고 그제야 안다. 제대로 살도록, 창피해도 위신과 체면을 벗어 버리고 배워라.

47. 마귀는 순전히 가짜만 소개하고 쫓는다.

48. 악한 자, 속이는 자, 형식적인 자, 현금이나 성자의 일을 억지로 하는 자, 외식하는 자, 형식 기도를 하는 자, 진정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가짜다.

49. 가짜는 휴거되지 못한다. 천국은 가짜가 없는 세계다. 진짜 세계다.

50. 자기가 가짜인지, 반 가짜인지, 조금만 가짜인지, 어느 부분이 가짜인지는 자기가 안다. 그러니 너의 마음과 행실을 날마다 진짜로 만들어라.

51. 자기 마음과 행실을 진짜로 만들어라. 힘들더라도 고생되더라도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 만큼은 자기가 만들 수 있다. 자기를 만들면, 그다음에는 형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자기를 만들고, 형제들도 만들어 주어라.

52. 성자는 오늘도 100% 진짜를 찾아다니신다. 휴거의 영의 위치까지 데리고 가서 천국으로 가는 신부 옷을 입게 하신다.
53. 가짜들은 분체의 두 증인을 외면하고, 모이면 분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입을 벌리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 혼계에 가면 다 보인다.
54. 가짜가 진짜를 지적하며 큰소리치면서 지도한다. 진짜는 가짜를 다 알아본다. 그러나 가짜는 자기가 진짜라고 알고, 상대 진짜를 가짜로 보고 말한다. 그러다가 결국 진짜와 가짜를 감정하는 성자 분체에게 물어본다.
55. 가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다. 가짜 진리도 그러하다.
56. 현시대 가짜 메시아와 재림주들은 거의 다 죽어서 그 영이 가짜 영의 세계에 가 있다. 아직 세상에 몇 명이 남아 있는데, 이미 색이 변질되어 본성이 드러나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하나님은 가짜들을 심판하시고, 성자는 가짜들이 성자를 가린다면 양심심판을 하시어 세월과 함께 시체로 떠내려 보내신다. 가짜들은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으로 떠내려간다.
57. 가짜들이 진짜를 썩은 것으로 먹칠하고 흠칠하여, 사람들이 진짜를 못 보고 악평하게 했다. 전능자 성자가 그 속에 계시니 성자가 가짜들을 양심심판 하셨다. 이에 진짜가 점점 드러나서 그 진리가 빛이 나고, 지구촌에 택한 자들이 진짜 역사로 몰려들게 하신다.
58. 지금 이 시대는 가짜를 진짜로 속여 파는 자들을 엄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 시대다.

59. 가짜들이 속여서 진짜 하늘의 것을 뺏어 갔다. 그러나 다 탕진하고, 결국 사망길로 갔다.

60.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영원하니, 빛난 영이 되어 천국까지 가서 진짜 황금 보석 세계인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서 가끔씩 세상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 가짜들의 영이 간 세계로 전학을 가서 그들을 보기도 한다.

61. 가짜를 다 버리고, 성자가 주시는 진짜 말씀을 듣고 매일 변화되고 온전히 부활되어 성자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이때다.

62. 자기를 전도한 자는 자기를 하늘 잔칫집으로 인도해 준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불러왔다. 그런데 전도자만 의지하고 하늘 신랑과 일체 되지 않으면, 자기 재능대로 살지 못하여 하늘 신부가 되기 어렵다. 전도자와 함께 그 주관권에서 살면, 그 차원에서 사는 자들의 사고를 받아서 그 차원에서 살게 된다. 분체에게 와서 제대로 구원받고, 그의 정신과 행위로 성장하여 성자에게 가야 된다.

63. 전도자들은 생명이 어릴 때만 겨우 기르고, 전도자의 차원을 못 벗어난다. 전도자에게만 길러져서 큰 자는 섭리사에 한 명도 없다. 분체가 키워야 되고, 분체가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커야 된다. 마음과 행실과 혼과 영이 변화되고 부활되도록 성자와 일체 되게 접붙여야 섭리사에서 큰 일꾼이 되고 성자의 참신부가 된다.

조은 목사는 전도되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이 한 마디씩, 1분씩 가르쳐 주었다. 그 말씀을 철학으로 삼고 행하며 뛰었기에 지금 섭리사에서 날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도 분체의 가르침

을 받아 섭리사 전체를 가르쳐 주며 선생이 되어 뛰고 있다.

분체의 말 한마디는 일억 천만금 같다. 그 말을 들으면서 커야 된다.  
비유컨대, 백성 중에 왕의 말을 들은 자는 백성이라도 왕 같은 정신  
을 받아 사는 것과 같다. 고로 왕은 그를 쓴다.

64. 전도자들이 전도한 생명을 자기 대상으로 삼고 기르면, 그 사람의  
좋은 재능을 버리게 된다. 처음부터 ‘진리’로 온전히 길러라. 섭리  
에서 크게 하고 싶으면 분체에게 배우게 하여라. 그러므로 성자와  
일체 되게 하여라.

65. 진짜가 될 자인데 전도자나 관리자가 자기중심의 생각을 넣어서 미  
완성으로 만드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들은 모두 휴거되지 않는다.

66. 가짜 시간을 만들지 말아라. 진짜 시간을 만들어 쓰기다!

67. 육의 사랑의 과일은 사랑 한 가지만 한다. 그러나 뇌 과일은 글도  
쓰게 만들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자도 사랑하게 하는 등 수만 가지  
를 하게 한다. 매일 뇌 과일을 써라. 뇌 과일을 매일 써서 자기를 부  
활시키고 휴거시켜야 된다.

68. 뇌 과일에 딸린 육체 과일은 뇌 과일의 부속품으로 기계 속의 나사  
한 개와 같다.

69. 육 과일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못 된다. 뇌 과일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한다.

70. 뇌 과일은 그 크기가 지구만 하고, 육 과일은 사과만 하다.

71. 뇌 과일에서 자기 영을 진짜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뇌 과일 사랑>은 우주선 차원의 위력으로서 지구를 벗어난다. 그러나 <육 과일 사랑>은 헬기나 비행기 차원으로서 지구를 못 벗어난다. 오직 뇌 사랑만 성자에게 상달된다. 고로 뇌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육 과일도 그에 일체 시켜 행하게 하여라.
72. 육체에 속한 육 과일은 육이 땅을 면치 못하듯이 땅을 면치 못한다.  
뇌 과일은 하늘까지 날면서 간다.
73. 육체, 혼체, 영체다. 오직 영체를 중심으로 하여 육체와 혼체의 성을 쌓아라.  
육체는 물질이라서 날마다 늙어 가고 병들고 쓰러진다. 그러니 늙기 전에 하여라.
74. 네 육도 혼도 네 영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남아서 빛을 받으며 존재한다.
75. 거짓말하는 가짜들은 천국 성 밖에 있다.
76. 사탄은 한 번도 진짜의 말을 못 한다. 사탄이 하면 진짜도 거짓으로 변한다.
77. 하나님은 가짜 인생들을 심판하신다. 고로 나는 세상의 가짜들을 놓고서 날마다 기도한다.
78. 불법자들은 다 가짜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뱀이요, 사자요, 이리요, 야수들이다. 속지 말아라. 성자에게 물어보고 판단하고 행하면 안 속는다.